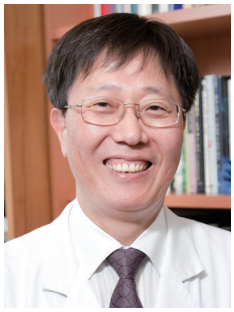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 토머스 파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17세기 초반 잉글랜드에서 1483년에 태어난 100세가 넘은 노인이 작은 시골마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퍼졌다. 100세가 넘어서 불륜으로 아이를 얻었고, 부인이 사망한 후 그 불륜 상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122세였다는 노인의 이름은 토머스 파(Thomas Par)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다.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알기 위해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당시의 왕 찰스 1세도 그 중 하나였다. 왕은 1635년에 그를 런던으로 불렀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는데, 혹시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대단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왕의 질문에 파는 "제가 100살 때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때 고해성사를 한 것이 아마도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파는 왕을 알현한 후 런던에 머물다 돌연 사망하고 말았다. 문서상 향년 152세 9개월이었다.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왕은 왕족이나 위인들만이 묻히는 것으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를 매장하도록 명령했다.

조금 황당한 이 노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사실로 믿어온 이유는 세계 최초로 인구통계를 확립한 영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에 더하여 윌리엄 하비라는 의학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의사가 그를 부검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실험적 생리학'의 원조로 불리며 혈액순환에 관한 심장의 역할을 처음 밝힌 하비는 '모든 장기가 완전히 정상이었고… 방금 태어난 인간의 장기처럼 건강했다. 심지어 노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갈비뼈 부위의 석회화도 없었다'면서 그가 런던에서 받은 '융숭한 대접에 따른 과식과 도시의 오염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어' 사망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비 의사는 그의 실제 나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장 수명이 150세가량이라고 하지만 실제 150세가 넘었다는 인물의 모든 장기가 젊은 시절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정상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비의 부검기록을 검토한 현대 의학자들이 노인의 임종시 생물학적 나이가 7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점, 또 그가 어렸을 때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서 152세라는 나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서 작성과정에서 파의 할아버지 기록과 파의 기록이 혼선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스나 반다이크 같은 당대의 위대한 화가들이 의학역사상 가장 장수한(?) 그를 모델로 하여 그린 초상화를 통해, 혹은 트웨인이나 조이스 등의 문장가들이 작품 속에서 언급하는 그의 이미지를 통해 '올드 톰 파'(Old Tom Par)는 영국 대중의 마음속에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장 오래 산 인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의 이름을 따서 1909년에 발매된 '그랜드 올드 파'라는 위스키 브랜드는 자사의 스카치위스키 숙성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상표에 토머스 파 노인의 생몰일자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